

대산항 2-4부두 8월 임대계약

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7월 준공되는 대산항 2-4부두에 대한 부두 운영회사 선정심사 결과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가칭 대산항만운영(주)을 선정했다.

대산항만운영은 대한통운과 동방의 지분투자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선정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단일법인을 설립해 대산청과 부두임대에 대한 정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대산항만청은 선정된 운영사와 협의해 빠른 시일에 부두를 개장할 방침이다.

대산항에 신설된 부두는 잡화부두 2선석과 다목적부두 1선석 등 모두 3선석이다.

<화학저널 2011/07/01>